

성장 지표 개선, 수익·비용 지표도 제조업보다 '우수'

- 2006년 건설업 경영분석, 부채비율은 150% 수준 유지 -

2006년 건설업의 재무 구조는 차입금의 증가로 안정성 지표는 전년보다 약간 부진하였다. 그러나, 원가절감 노력으로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 그리고 수지 비율 등 비용성 지표가 제조업보다 우수한 안정적인 기반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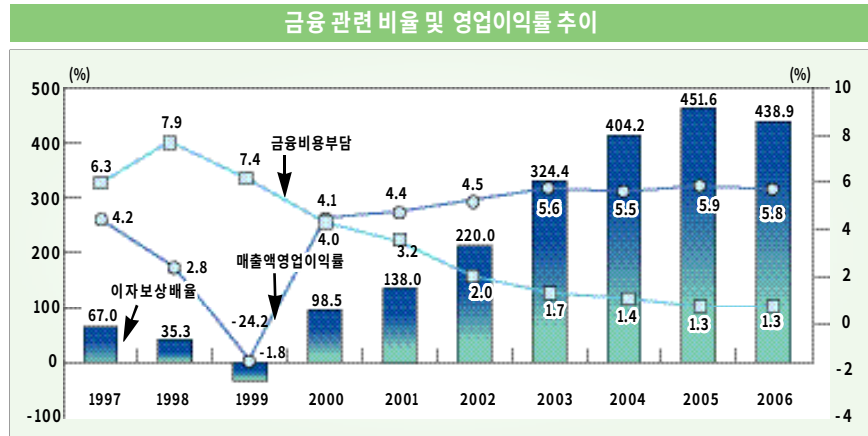
또한, 전체 매출액이 전년의 5.4% 증가에서 8.1%로 높아짐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를 보였고, 자본 확충 노력으로 총자산이 증가하는 등 성장성 지표도 전년보다 개선돼 최근 건설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매출액 7.9% 증가

2006년 건설 매출액은 국내 시장의 회복세와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약진에 힘입어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 분양 매출은 18조 2,504억원으로 2.2% 감소를 보였으나, 국내도급 공사 수입은 11조 8,94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5% 상승하였다. 해외 공사 매출 또한 전년보다 48.0% 상승한 8조 4,266억원을 기록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건설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기업이 전년보다 0.2% 증가에 그쳤으나, 소기업과 대기업은 전년보다 각각 6.1%, 11.2% 증가하여 중견 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경향간에는 지방이 전년보다 6.7% 증가한 데 반해 서울은 9.4% 증가하여 지방 업체에 비해 부진을 보여 왔던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자산은 매출 증가세로 전년보다 3.9% 증가하였다.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기계 장치가 전년보다 4.5% 감소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건설중인 자산과 건설용 장비가 각각 2.3%, 3.7%, 8.6%, 28.9% 증가한 데 기인하여 상승세를 보였다. 업체 규모별로는 소기업과 중기업이 각각 전년보다 6.2%, 5.9% 증가를 보였고, 대기업은 전년보다 3.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와 원가 절감 노력에 따라 경상이익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자기자본은 전년보다 12.9% 증가하였고, 총자본도 전년보다 13.0% 증가하였다.

부채 비율 150% 수준 유지

안정성의 경우 유동비율(141.1%→141.3%)은 조금이나마 상승하였으나, 장기 차입금 규모의 증가 등 고정 부채가 상승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도 낮아지는 등 주요 안정성 지표가 전년보다 약간 악화되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2002년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150%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은 2002년부터 130%에서 140%대로 상승하는 등 최근의 건전한 재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채 비율은 전년도 151.4에서 2.2%p 상승한 153.6%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 영업외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 순이익의 증가로 자기자본이 증가하였으나 회사채 등 타인자본 조달 증가가 더 상승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105.4%, 173.1%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전년보다 8.1%p 상승한 171.6%로 나타났다.

유동 비율은 재고 자산의 증가로 전년보다 0.2%p 상승한 141.3%, 당좌비율은 전년보다 0.2%p 하락한 110.7%로 나타났다. 총자산 대비 부채 비중(60.2%→60.6%)은 전년보다 0.4%p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은 0.4%p 하락하였다.

자산 운용 구조를 살펴보면 총자산에 대

해당기투자증권및공사미수금의증가로 유동자산비중(58.1%↗59.3%)과 고정자산 중 투자 자산(20.9%↗21.4%)에 늘어났으며, 유형 자산(18.7%↗17.1%)의 비중은 줄어 들었다.

부채비율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부채비율 100% 미만의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한 업체의 비중은 89.3%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그리고 직하위 그룹인 100% 이상 400% 미만인 업체의 비중도 전년보다 0.1%p 상승한 7.9%를 기록하였으나 400% 이상 업체의 비중은 0.6%p 하락하였다. 이는 비중이 큰 대기업의 부채 비율 상승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업체의 대다수인 중소 업체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차입금의존도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차입금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3.3%p 하락한 41.0%로 나타났지만, 10% 이상 30% 미만 업체의 비중은 전년보다 3.0%p 상승한 49.9%로 나타났다. 30% 이상 업체도 0.3%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입금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하락, 적자 업체 1.4%p 상승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순건설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세전순이익률이 각각 0.5p%, 0.5p%, 0.8p% 하락하여 부진을 보였다. 하지만 겸업업체의 영업 실적 호조로 전체 건설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5.9%↗6.1%)이 0.2%p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가 제조업보다 건설하게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전년보다 0.4%p, 1.2%p 하락한 5.2%, 5.8%를 나타냈으나, 대기업은 0.4%p 상승한 6.1%를 보였다.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소기업과 중기업이 전년보다 하락한 5.4%, 5.1%를 보인 반면 대기업은 0.5%p 상승한 6.6%로 나타

건설업의 주요 경영 지표

(단위: %)

경영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¹⁾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증가율	13.2	13.2	-0.2	21.1	11.7	3.0	7.9	6.3
	총자본증가율	-14.3	-4.8	-10.8	10.0	10.1	10.7	13.0	8.1
	자기자본증가율	54.4	16.0	5.5	17.0	12.8	11.3	12.9	8.8
	유형자산증가율	-10.9	-7.7	-14.9	-0.7	4.2	2.0	3.9	6.0
안정성	순이익증가율	적자지속	흑자전환	218.4	58.3	27.2	4.1	8.9	-
	유동비율	116.2	125.4	131.1	133.7	136.3	141.1	141.3	120.5
	부채비율	291.7	221.7	171.9	155.5	149.4	151.4	153.6	98.9
	자기자본비율	25.5	31.1	36.8	39.1	40.1	39.8	39.4	50.3
	고정장기적합률	85.4	80.7	75.1	73.3	70.8	68.5	67.4	89.1
	당좌비율	77.1	86.4	98.3	101.3	105.8	110.9	110.7	89.5
수익성	차입금의존도	38.1	29.9	24.4	20.4	19.4	18.6	21.6	22.4
	매출액영업이익률	4.0	4.4	4.5	5.6	5.5	5.9	5.8	5.3
	매출액경상이익률	-0.9	0.2	2.3	4.8	5.6	5.9	6.1	5.7
	매출액순이익률	-2.8	1.5	2.9	4.8	5.6	6.1	6.0	4.5
비용지출	자기자본경상이익률	-3.2	0.8	7.5	12.7	14.6	14.8	14.5	13.2
	수지비율	102.7	98.6	97.2	95.4	94.7	94.2	94.2	94.5
	매출원가/매출액	89.5	89.3	89.6	87.4	87.9	87.1	86.9	82.5
	금융비용/매출액	4.1	3.2	2.0	1.7	1.4	1.3	1.3	1.2
활동성(회)	차입금평균이자율	10.2	11.1	9.9	8.9	7.3	6.9	5.8	6.3
	인건비대총비용	7.9	7.3	7.6	9.7	8.6	7.9	7.8	-
	총자본회전율	1.0	1.1	1.2	1.0	1.0	1.0	0.9	1.2
	자기자본회전율	3.8	3.4	3.3	2.7	2.6	2.5	2.4	2.3
생산성	자본금회전율	6.5	6.3	6.6	6.3	6.8	6.9	7.0	11.1
	매출채권회전기간(일)	78.1	69.7	58.3	69.5	74.5	80.5	83.6	-
	부가가치율	12.8	11.3	12.5	16.8	16.2	15.7	15.8	20.9
	총자본투자효율	12.2	11.9	15.0	17.6	16.9	15.6	14.7	24.4
생산성	설비투자효율	52.1	51.3	68.0	87.8	88.6	86.6	89.6	67.2
	노동소득분배율	66.7	66.8	61.3	56.8	52.0	49.5	48.9	47.1

주: 제조업수치는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에서 인용.

났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소기업이 0.4%p 하락하고, 중기업과 대기업은 전년대동일한 6.0%를 보였다.

이자 보상 비율(영업 이익/금융 비용)은 영업 이익이 상승하였지만 금융 비용의 증가가 더 커 전년보다 12.7%p 하락한 438.9%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의 업체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중 전체 조사 대상 업체 1만 1,179개사 중 1,688개사가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업체의 15.1%로 전년보다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3.4%로 전년보다 0.1%p 상

승하였지만 5억원 미만 흑자를 기록한 업체가 74.3%로 전년보다 1.0%p 하락하였다.

세전 순이익은 특별 손실의 증가로 전년대보다 0.1%p 하락한 6.0%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도 0.2%p 하락한 4.5%를 보였다.

비용성 지표 전년과 비슷

비용 관련 지표는 재료비의 절감으로 매출 원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이 판매비와 관리비(7.1%↗7.3%), 특별 손실(0.1%↗0.5%) 등은 증가했지만 매출 원가

절감(87.1%↗ 86.9%)과 영업의 수익(3.5%↗ 4.0%) 증가로 전년과 동일한 94.2%를 기록하여제조업(94.5%)보다도0.3%p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4%↗ 6.3%)은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으나, 소기업(8.5%↗ 9.0%)과 중기업(7.6%↗ 8.5%)은 전년보다각각 0.5%p, 0.9%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금융비용 부담률(금융 비용/매출액)은 전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고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차입금 규모도 증가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전년보다 3.0%p 상승한 21.6%를 나타냈다.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저금리의 지속으로전년보다1.1%p 하락한5.8%로 나타났다.

총자본 · 자기자본 회전율 각 0.회 감소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은 총자본이13.0% 증가한데비해매출액은7.9% 증가에 그쳐 전년 수준보다 0.회 감소한 0.9회로나타났다.

자기자본회전율도자기자본증가율이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보다0.1회하락한 2.회수준을보였다. 이 중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전년보다 0.회, 0.4회하락한 2.회, 2.5회를 나타냈고 대기업은 전년과동일한2.회로나타났다.

매출채권 회전 기간(매출 채권/매출액 36일)은 매출 채권이전년보다 12.1%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7.9%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보다 3.일이 늘어난 83.일로 나타나 2007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다.

이가운데소기업은 2.일줄어든 62.일, 그리고 중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1일, 4.9일이 늘어난 77.일과 93.일로, 소기업이 매출 채권 증가가 매출액보다 상승하여 부진을 보였다.



이병일
대한건설협회조사금융팀과장

그래픽 뉴스

주요 지표의 남북한 비교

		2005년		2006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인구(천명)	48,294	22,928	48,297	23,079
	경제성장률(%)	4.0	3.8	5.0	-1.1
	국민총소득(억달러)	7,868	242	8,873	256
	1인당국민총소득(달러)	16,291	1,056	18,372	1,108
	수출액(억달러)	2,844.2	10.0	3,254.6	9.5
	수입액(억달러)	2,612.4	20.0	3,093.8	20.5
	석탄생산량(만)	283	2,405	280	2,468
	발전량(억kwh)	3,646	215.6	3,812	225
	유탄생산량(만)	476.8	202.4	468.0	189.4
	수산물생산량(만)	271.4	90.9	303.2	92.3
	철강생산량(만)	21.3	491.3	22.7	504.1
	자동차생산량(만대)	369.9	0.45	384.0	0.44
	조강생산량(만)	4,770.0	116.8	4,843.3	118.1
	시멘트생산량(만)	4,720.0	593.0	4,920.9	615.5
	철도총연장(km)	3,378	5,235	3,392	5,235
	도로총연장(km)	102,293	25,495	102,061	25,544

자료: 한국은행.

남북한 간선 도로 · 철도망 계획



자료: 건설교통부.